

건강 칼럼

인공관절 반치환술: 장점, 회복 과정 및 중요 사항

인공관절 수술은 현대 의학의 혁신적인 성과로써, 다양한 통증을 완화하고 움직임을 개선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 수술을 통해 환자들은 다시 일상 생활을 아프기 전처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인공관절의 재료와 형태는 각각의 환자에게 맞춰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 관절의 수명은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예상되며, 수술 후에는 반드시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인공관절 수술은 전치환술과 반치환술이 있는데 이번에는 인공 관절 반치환술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인공 관절 반치환술은 일부 손상된 부분만 새로운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수술이다. 절개 부위가 작고 정상인 관절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후 약 2주후에는 일상 복귀가 가능하고, 관절 운동 범위도 넓어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 인공 관절 반치환술의 경우 삽입한 인공 관절과 본래의

관절이 하나의 관절처럼 이루어져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정확성과 정밀성을 더욱 요구하는 수술이다. 인공관절 반치환술의 장점은 뼈를 조금 깎아 출혈량이 적고 회복 속도가 빠르며 무릎의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모든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쪽만 망가진 관절을 가진 경우나 앞 무릎의 통증이 없고 안장 무릎의 변형이 심하지 않은 경우, 무릎의 운동 제한이 크지 않고 90도 이상 구부러지는 경우, 인공 관절 전치환술을 받기 어려운 고령 환자

의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인공관절 반치환술 후 통증은 환자에게 흔히 경험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 통증은 신체의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초기에는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다.

수술 후 1-2주가 지나면서 늘어나는 운동 범위와 관련하여 통증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통증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양한 물리 치료법과 통증 완화 약물이 활용되며, 환자는 이를 통해 신체적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인공관절 반치환술 후 재활은 극복해야 할 필수 과정이다. 재활의 목적은 수술 후 회복을 도모하고, 관절의 기능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 시키는 데 있다. 재활 과정에서 환자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각종 물리치료를 통해 관절의 움직임과 강도를 높여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재활 치료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성된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절해야 한다.

인공관절 반치환술 후 환자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지속적인 통증과 회복 경과에 따른 심리적 변화이다. 각 환자의 고통의 정도는 개인 차이가 크지만, 얼마나 잘 재활을 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경험 많은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고 후 관통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중요하다. 인공관절 반치환술 후 제대로 재활과 관리가 이뤄지면 수술 전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가져올 수 있다.



조영린
조앤조병원 대표원장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베네수엘라 의사 에르난데스, 성인 반열 오른다



25일(현지 시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라 파스토라 지역에 1919년 처음 치여 숨진 호세 그레고리오 에르난데스 박사 벽화가 그려져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에르난데스 박사를 성인에 올리는 시성 절차를 승인했다. 에르난데스 박사는 100여 년 전 스페인 독감이 창궐했을 때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치료해 '가난한 자들의 의사'로 존경받았다.

트럼프 “미국 영주권 72억에 팔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주권 혜택이 있는 '골드 카드'를 제시하면서 이를 500만 달러(한화 약 71억6000만 원)에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유한 사람들이 이 카드를 구매해 미국에 들어와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세금을 내고,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설

결별 못하는 국힘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못하는 건, 서로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지층을 결집시켜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긴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의 옥중 발언 전달자를 자처한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범죄 혐의의 큰 줄기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발언들이 유력 정치인의 입을 통해 그대로 퍼져 나가는 것이다.

지지층은 물론 젊은층까지 업무에 둔 듯한 정치적인 메시지도 가감없이 전달된다. 대통령은 구속 수감 직후 변호인을 통해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도 여론으로 탄핵심판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 나가 부하들 탓을 돌리며 책임을 부정하고 구치소를

찾은 의원들의 입을 통해 탄핵이 부당하다고 외치는 것이다.

여기에 여당의 이해관계까지 맞아떨어지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는 오히려 늘었다. 일단 효과는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순교자로까지 추켜세운다.

당초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거리를 둘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보수 진영 결집세가 예상보다 단단한 모습을 보이자, '대통령 거리두기'는 요원해지는 분위기이다.

조기 대선은 탄핵 뒤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이뤄지기 때문에, 그 동안만 견고한 결집세를 유지한다면 더 유리할 거라는 계산이 깔린 걸로 보인다.

지지율이 꺾였다 해도 과연 인간적인 도리를 내걸고 면회를 갔을까. 대통령 면회 자체가 '계엄옹호당'으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쓴소리도 나오지만, 소수의 작은 목소리에 그치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 '목사방' 총책의 신상 정보가 최근 공개됐다. 33세 김복완으로 올해 첫 신상 공개 피의자이다.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근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을 꾸린 조직 총책이다.

2020년 범죄 집단을 만들어 약 5년 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모두 234명으로 이 가운데 150명이 미성년자였다. 피해 규모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과 비교해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스스로 '목사'라 칭한 김 씨는 범행에 동조하는 이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하고, 이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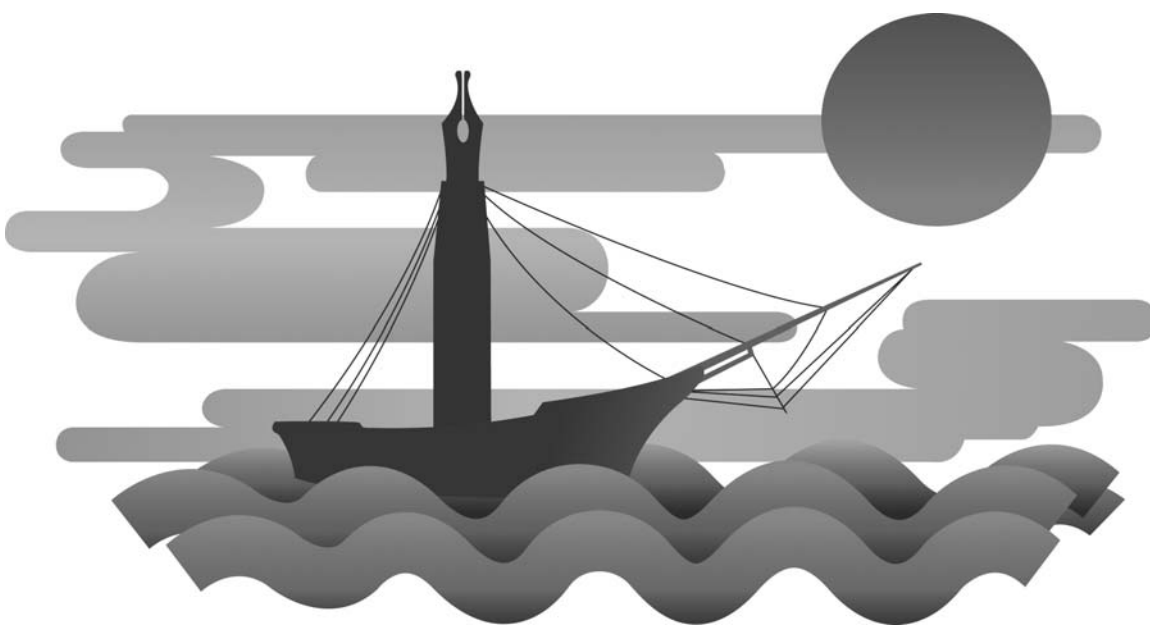
집사와 전도사 등 계급을 정해주기도 했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 조직원도 있었다. 김 씨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며 경찰을 우롱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처음으로 텔레그램 협조를 받아 김 씨를 붙잡았다.

텔레그램은 Telegram Messenger LLP가 2013년 출시한 뒤 개발 및 운영 중인 오픈소스 모바일 메신저이다. 2018년 2월부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수십여 명에게 성적 괴롭힘을 동반한 '성착취 영상물'과 성적 행위를 하는 '포르노 영상'을 적도록 협박했다.

그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다수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끔찍한 성범죄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텔레그램의 문제로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텔레그램의 인식이 크게 나빠지는 발단이 되었다. 이전엔 애플 앱스토어에서 삭제된 적도 있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